




줄트라크

최근 수정 시각: 2024-09-17 15:41:14

분류:장송의 프리렌/설정

목차

1. 개요
2. 설명
3. 여담



| 줄트라크 ソルトラーク 人を殺す魔法 Zoltraak | |
|--|------------|
|  | |
| 크발 | 프리렌 |
| 사람을 죽이는 마법 | 마족을 죽이는 마법 |

1. 개요

장송의 프리렌에서 등장하는 **일반 공격 마법**. 과거에는 무적의 일격기로 통했지만 현 시대에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일반 공격기로 분류되었다. 주인공인 **프리렌**, **페른**의 주요 공격기이며, 시간의 흐름이라는 만화의 주요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 만화를 상징하는 마법이다.

2. 설명

줄트라크의 연사 장면

|  |  |
|---|---|
| 크발 | 페른 |

사람을 죽이는 마법

마족을 죽이는 마법

^{줄트라크}
사람을 죽이는 마법. **그놈**이 개발한 사상 첫 관통마법이야. 인간의 방어마법은 물론 장비의 마법내성마저 관통하고, 인체를 직접 파괴하는 마법이지. 이 지방에서는 모험자의 4할, 마법사 중에서는 7할이, 줄트라크에 살해 당했다고 해.

▶ **장송의 프리렌** 원작 5화(TVA 3화), **프리렌**

작중 시점에서 80년 전 **대마족** 부패의 현로 **크발**이 개발한 마법. **사람을 죽이는 마법**이라고 쓰고 '줄트라크'라고 읽는다.^[1] 상술한대로 작중에서 인류는 이 마법을 해석및 운용에 성공함에 따라 '일반공격마법'이라 부르지만, 마족들은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마법'이라고 부른다.

일반공격마법이라는 이름 답게 연출만 보면 마력으로 이루어진 광선을 발사하는 단출하고 시시한 마법처럼 보이지만, 줄트라크가 마법의 역사에 길이 남은 이유는 **사상 최초의 관통마법**이었기 때문이다. 발명 당시 줄트라크는 **현존하던 인류의 모든 마법방어 수단을 완벽히 무시하고 인체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마법이었다.

^[2] 그러니까 **가불기**인데 **즉사기**라는 치트키급 마법이었던 것.

지금은 **방어마법**이 발명되어 누구나 줄트라크를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현대 마법전에서 줄트라크의 위용은 여전하다.

- 가장 큰 특징은 **타 종족도 분석할 수 있는, 깔끔하고 세련된 구조**라는 점이다. 인류와 마족은 정신구조가 달라서 인간은 난이도의 문제를 떠나 마족의 마법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 그러나 줄트라크는 '마왕군 최고의 마법사'라는 크발의 이명에 걸맞게 철저하게 논리적인 마술이론에 기반하여 구성되어서 프리렌을 비롯한 인류 마법사가 5년간 시간을 들인 끝에 분석/개량에 성공했다.^[4]
- 두 번째 특징으로, 범용성이 매우 우월하다. 현대의 줄트라크는 어느 정도 개량된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 공격마법이란 이름답게 줄트라크는 모든 마법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적인 마법이 되었다. 즉 위력에 비해 학습난도가 턱없이 낮아 **마법사라면 개나 소나 쓸 수 있는 마법**이며, 그럼에도 살상력, 발동 속도, 마력소모, 사거리, 응용력 모든 면에서 단점이 없는 만능 공격 마법이다.
- 세 번째로 개량하기도 쉽다는 점. 숙련된 마법사라면 궤도를 조절해 빔을 노릴 수도 있고 마력을 더욱 압축해 범위를 줄이고 관통력을 강화하거나, 아예 마력감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초장거리에서 저격용으로 사용하는 등 단순한 구조에 걸맞은 넓은 응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줄트라크가 '일반' 공격마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기초이자 누구나 기본적으로 배워야하는 마법이어서지 약해서가 아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간 사회에서 줄트라크가 **80년이 지나도 계속 쓰여왔다는 것 자체가 이 마법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만약 위력이 변변찮았다면, 다른 장점이 많더라도 현재 마법전의 주류로 정립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크발이 죽은 작중의 현 시점에도 줄트라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마법**으로서 남아있다.

가장 마법전 경험이 많은 인물 중 하나인 프리렌도 공격 용도로 주로 개량형 줄트라크를 사용하고 수제자인 페른도 줄트라크와 일반 방어 마법을 주력으로 사용하도록 수련시켰다.

현재의 마법전 체계역시 줄트라크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었는데, 당연히 이에 맞춰 방어 마법^[5]과 방어 마도 구도 기본 옵션이 '줄트라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다. **현 마법전의 체계 자체를 줄트라크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막느냐**로 정립한 셈.

^{줄트라크}

일반공격마법은 엘프에게 있어 비교적 새로운 마법이거든. 반사신경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방어할 만한 정도의 세월은 지나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대처하는 데는 단 한 순간, 아주 작은 오차 같은 시간이지만 생각하는 만큼 늦어지게 돼.

▶ **장송의 프리렌** 원작 53화, **프리렌**

알못게도 이런 점 때문에 실제로 줄트라크가 쓰이는 경우는 마력량이 막대한 상급 마족이나 엘프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드물다. 방어 마법의 난이도와 가성비가 줄트라크보다 나쁘기 때문에, 선불리 난사했다가 방어 마법을 펼칠 수 없게 되면 그대로 한 방 맞고 황천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의 마법사들간 승부는 주변 환경등을 이용해 최대한 마나를 절약하며 싸우다가 결정적인 순간 줄트라크를 날려 결판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술한 프리렌의 대사처럼 이에 맞춰 줄트라크 피격 직전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방향에 방어막을 펼치도록 훈련하는 등 방식도 정립되었다.

줄트라크의 위상은 마족들에게도 높다. 마흐트는 **옛 친구**가 만든 위대한 마족의 마법이라고 말했고, 류그너나 다른 마족은 반세기 전에 줄트라크를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줄트라크 자체도 방어마법이 발명되자 그에 대항하기 위해 더욱 개량되어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줄트라크는 기본구조만 같을 뿐 사실상 다른 마법이라고 한다. 특히 프리렌은 줄트라크를 인류가 아니라 마족을 상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개량하였기 때문에, **류그너**는 **페른**이 사용하는 줄트라크를 보고 '사람을 죽이는 마법'이 아니라 **마족을 죽이는 마법**이라 불려야 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사람을 죽이는 마법'이란 호칭은 쓰이지 않게 되었으나, 여전히 줄트라크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마법이다. 인류끼리 전쟁에서 줄트라크를 사용해 서로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마법은 인류도 마족도 죽이는 마법이 되어버린 것. 대마족 **솔리테르**도 인류끼리 자신의 마법으로 살육전을 벌이는 광경을 봤다면 크발 또한 지옥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롱했다.

3. 여담